

Japan Weekly Digest

2010. 6. 14 ~ 6. 20

□ 금주의 이슈

- 한일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 개최, 부품소재 협력 등 논의
- 일본기업, 외국인 채용 확대
- 노무라, 외환은행 인수전 합류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경단련 요네쿠라회장, 나오히메 경산상과 회담
- 동아시아공동체 의원연맹 발족, 하토야마 전총리 회장 취임
- 산요, 차세대 태양전지 2013년부터 양산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경산성,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기구설립
- 경산성, 사우디와 '오키나와 원유탱크 활용계획'에 합의
- 日정부, "에너지백서" 발표, 해외자원개발 등이 관건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10년간 120조엔을 창출하는 새로운 내수 진흥대책, 미즈호종합연구소 (2010.6.16)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- **한일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 개최, 부품소재 협력 등 논의**
 - 제3차 한·일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가 16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음
 - 이번 회의에서 한·일 양국간 무역 확대와 균형을 위해 **부품소재, 중소기업, 산업기술 연구개발(R&D)**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
 - 지난 5월 한·중·일 정상회의 및 한·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**표준협력 공동성명 이행 방안과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 방안**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
 - 이밖에 △WTO, DDA △G20 정상회의 및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 협의

○ **일본기업, 외국인 채용 확대**

- 일본경제신문은 15일, 일본 업체가 해외에서 현지의 설계·개발이나 영업 부문에서 외국인을 대량 채용하고 있다고 보도
- 파나소닉은 작년 대비 50% 증가한 1,100명의 외국인 채용(채용 후 일본에서 2년간의 장기 연수를 실시), 미쓰비시중공업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설계부문 등에서 연간 약80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
- 신흥국시장개척을 위해 일본 국내 채용은 억제하면서 인재의 글로벌화 진행

회 사	채 용
UNIQLO	-신입사원의 약50%를 외국인 채용
다이킨공업	-연내에 중국에서 에어컨개발자 160명 채용
라쿠텐	-신입사원 10~20%에 해당하는 100명을 외국인 채용

○ **노무라, 외환은행 인수전 합류**

- 일본 노무라 홀딩스가 국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
- WSJ는 "노무라증권의 지주회사인 노무라 홀딩스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"고 보도
- 통신문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"현재 논의 초기단계이며, 거론되고 있는 여러 안 중 하나일 뿐"이라고 덧붙임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**경단련 요네쿠라회장, 나오히라 경산상과 회담. 신성장전략 등에서 의견교환**
 - 일본경단련의 요네쿠라 회장은 16일, 나오히라 경산상과 성장전략 등 중요정책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
 - 요네쿠라 회장은 「중요한 것은 성장전략의 구체화와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」라고 언급, 실현을 위한 행동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
 - 경산상도 「정책 메뉴는 거의 다 정리가 되었고 앞으로는 그것을 실행할 뿐이다」고 언급
 - 이밖에 경단련측은 환경이나 세제,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경제계 요망을 전하고, 경산성이 작성한 「산업구조비전」에 대해서도 의견교환

○ **동아시아공동체 의원연맹 발족, 하토야마 전총리 회장 취임**

- 하토야마 전총리 등 민주당 의원들은 15일,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「동아시아 공동체의원연맹」의 설립총회를 개최하고, 하토야마 전총리를 회장으로 선출
- 총회에는 약50명이 참석하고,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재확인
 - * 동아시아 공동체는 하토야마 전정권의 대표적인 외교 구상
- 정권을 이어받은 간 총리도 소신표명연설에서 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웃국가와 정치·경제·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관계를 강화하고,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겠다」는 생각을 표명

○ **산요, 차세대 태양전지 2013년부터 양산**

- 산요전기는 15일, 차세대 태양전지셀의 양산을 2013년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음
- 2010년도에는 태양전지패널 조립능력을 연간 680메가와트로 증강하는 계획
-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파나소닉 PDP공장부지 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
- 현행 산요의 태양전지셀의 양산베이스의 변환효율은 20%지만, 올해안에 21%까지 끌어 올리는 계획
 - * 최종적으로는 차세대 태양전지셀의 변환효율 23%이상이 목표

○ 경산성,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기
구 설립

- 경제산업성은 2011년에 스마트그리드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기구를 민관협력으로 설립한다고 발표
- 일본 업체가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활용하고 해외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주 받았을 경우, 출자나 용자를 통해서 지원(자금규모는 400~600억엔)
- 향후 20년간 95조엔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스마트그리드사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
- 명칭은 (가칭) 「스마트커뮤니티 수출촉진 공사」. 경산성과 국내기업 20사가 참가하는 「스마트커뮤니티 관련 시스템 포럼」에서 기구 설립을 제안

○ 경산성, 사우디 아람코와 ‘오키나와 원유탱크
활용계획’에 합의

- 경제산업성은 14일, 사우디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(ARAMCO)와 ‘오키나와 원유탱크 활용 계획’에 합의했다고 발표
- 사우디 아람코가 중국 등 아시아에 수출하는 원유를 오키나와 현내에 비축하고, 긴급 시에는 우선적으로 일본에 공급한다는 계획
- * 오키나와 석유기지는 60만 킬로리터의 저장가능
- 오키나와 현내 에너지관련 외자 유입 예로, 2008년 브라질의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(Petrobras)가 난서석유(南西石油)를 매수한 적이 있음

○ 日정부 “에너지백서” 발표, 해외자원개발 등이
관건

- 일본 정부는 15일, 2009년도 “에너지백서”를 발표
- 신흥국의 성장으로 세계 에너지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, 필요량을 적정한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, 해외자원 개발권획득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확대가 관건이라고 지적
- 또 백서에서는 낮은 에너지자급율과 함께 자원수입처가 중동이나 호주, 인도네시아에 편중되어 있는 점 등이 일본 에너지 안전보장의 문제점이라고 분석
- 해외에서 직접 생산하는 자주개발 권한 확보가,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강조

10년간 12조엔을 창출하는 새로운 내수 진흥정책
미즈호 종합연구소 (2010.6.16)

○ 내수 진흥대책의 필요성

- 일본은 세계금융위기·동시 불황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, 국내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음
- 국내경제의 타격으로 인해, 내수가 부진하고, 수요와 공급의 차이(수급GAP)가 존재
- 수급GAP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립적·안정적인 성장에 회귀시키기 위한 내수 진흥대책이 필요함

【중요5분야 내수 진흥대책】

① 고령자 자산의 활용 : 65세 이상의 고령자의
순금융자산 360조엔[대책①] 자녀에 대한 자산이전을 촉진시키는
증여세감세

- 360조엔의 10%가 자녀에게 이전되고, 소비에 사용된다면 GDP 7% 증가 효과

[대책②] 역모기지(reverse mortgage)의 보급
(약10조엔의 잠재수요가 존재)

- 주택의 자산가치를 소비에 전환할 수 있는, 유효성이 높은 메커니즘

② 환경대응의 주택·자동차의 보급 : 제조업의 가
폭제[대책①] 주택의 단열성능 향상·태양광발전 설치
의 추진

- 「주택 에코 포인트 제도」 확대 →향후 10년간 약20조엔의 경제효과

[대책②] 차세대자동차의 보급 촉진→약5조엔의
경제효과

③ 국내여행의 활성화 : 서비스산업의 기폭제

[대책①] 여행 포인트 제도의 창설

- 여행 당 1만엔에 해당하는 포인트 제공

[대책②] 휴일 확대, 휴가의 취득 촉진

- 연간 2번의 1주일 휴가를 장려하는 「일본판 바캉스법」 제정

④ 가사·육아·개호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: 수요
진작을 통해 고용·소득으로 연결

[대책①] 어린이수당의 일부를 「바우처」화

- 수당2.6만엔 가운데, 1.3만엔을 육아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→약3조엔의 경제효과

[대책②] 대우 개선에 의한 개호노동자의 확보

- 약3조엔의 경제효과와 약40만명의 고용효과

⑤ 여성의 취업 촉진 : 소득 증가 프로세스

[대책] 육아 인프라·서비스의 정비·확대, 워크·
라이프·밸런스의 본격도입

- 육아시설 인프라 정비와 약250만명의 고용창출에 의해 3.7조엔의 경제효과

【일본 관련 주요 보고서】

□ 『한일비교가 유행하고 있지만..』 다이와종합연구소, 6월14일

- 한국기업은 신흥국시장 개척, 볼룸존의 점유율 획득에 있어서는 일본 기업보다 앞서 나가고 있음. 그 이유는 기업전략의 우열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지만, 보다 직접적으로는 금융위기 전후에 있어서의 원화약세가 가격 경쟁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

<http://www.dir.co.jp/publicity/column/100614.html>(출처)

□ 『제조업에 필요한 신성장전략』 노무라종합연구소, 6월15일

- 일본 제조업이 신흥국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, 스스로 생산으로부터 판매까지 모두를 하려 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함. 신흥국의 현지기업의 노하우를 흡수하고, 일본류의 품질을 추가한다는 발상으로 승부해야 함

http://www.nri.co.jp/opinion/it_solution/2010/pdf/ITSF100602.pdf(출처)

□ 『인프라 해외전개를 위한 종합전략에 대해서』 일본무역회, 6월16일

- 해외 인프라의 수주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민관 협력체제의 구축임. 일본은 이러한 컨소시엄 형성에 약함. 향후, 종합상사가 중심이 되고, 관계회사간의 연계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

http://www.jftc.or.jp/shoshaeye/contribute/contrib2010_06e.pdf(출처)

【금주의 일정】

일자	주요 일정
6/14(월)	○ 4~6월기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(내각부·재무성) ○ 4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(경산성) ○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합 개최
6/15(화)	○ 시라가와 일본은행총재 기자회견 ○ 산요전기 태양전지 사업 설명회 개최
6/16(수)	○ 4월 제3차 산업 활동지수(경산성) ○ 6월 금융경제월보 발표(일본은행) ○ 한일 국장급 경제통상협의회 개최(서울)
6/17(목)	○ 4월 경기동향지수 개정치 발표(내각부) ○ 1~3월기 자금순환통계 발표(일본은행)
6/18(금)	○ 한일 유통협력에 관한 MOU 체결(지경부장관님 참석) * 한일재단, 일본드렉스토어협회,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등

【파트너를 찾습니다】

열처리로 로체 위탁생산

- 일본기업으로부터 열처리로 로체(爐體)를 한국기업에 생산위탁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(SUS제관품 /도면 개별 제공)
- 주요사양
 - 개략치수 : 5000×1300×826
 - 소재재질 : SUS310S 및 SUS304
 - 정 밀 도 : JIS B0404 1977 에 준함
 - 열처리 온도 : MAX 800℃

선박(어선)용 엔진절감장치 판매대리점 모집

- 의뢰기업명 : S기업(상세 기업명 개별공개 예정)
- 일본 S기업(상사)에서 어선용 연료절감장치(메이커:니혼테크노)를 한국내에서 선주(船主)를 대상으로 판매해줄 대리점을 찾고 있음.

초소형 프레이즈반(밀링머신) 판매 / 부품조달

- 의뢰기업명 : 에노모토 공업
- 일본의 에노모토 공업으로부터 초소형 프레이즈반 한국 판매 및 해당 부품의 (한국으로부터의) 조달에 대한 의뢰가 있었습니다.

스텐레스단조 부품(반도체제조장치용 밸브) 조달

- 의뢰기업명 : U공업 (기업명 추후 공개)
- 일본에서 한국의 스텐레스단조메이커를 찾고 있습니다.
- 용도 : 반도체제조장치에 사용되는 밸브부품
- 향후일정 : 추후 도면제공, 공장견학 예정

특허리포트 판매 희망

- 의뢰기업명 : 네오테크놀로지
- 일본기업 네오테크놀로지(www.neotechnology.co.jp)에서 한국 출판사 또는 기업(전자분야)을 대상으로 특허 리포트 판매를 희망

* 관심있으신 회원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 비즈니스협력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 : 전재용 선임연구원

Tel : 02-3014-9845 / jjun@kjc.or.kr

